

1894년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

신 진 희*

- I. 머리말
- II. 동학 확산과 두 번의 시련
- III.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활동
 - 1. 동학농민군의 근거지
 - 2.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활동
- IV. 동학농민군의 세 번째 좌절 : 안동영장 김호준의 동학농민군 진압
 - 1. 도총소 결성과 안동부 동학농민군 진압
 - 2. 안동 도총소 병력의 타지 파견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永嘉記事』를 활용하여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을 차례대로 재정리하였다. 1860년대 교조 최제우의 처형으로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였고,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과 그 진압이 두 번째 좌절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김호준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세 차례의 좌절은 민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 바탕이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활동과 그 좌절은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그들을 진압했던 세력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민의 입장에서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 rrnf114@nate.com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전기의병, 10년 뒤 중·후기의병 그리고 다시 10여 년 뒤 일어난 3.1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부르짖음이 되었다.

◆ 주제어

『永嘉記事』, 동학농민군, 최제우, 이필제, 김호준, 전기의병, 중·후기의병, 안동

I. 머리말

근대기 전국적인 모순이 표출되었다. 1894년 전라도에서 반봉건·반침략을 내세운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일본과 청 등 외국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대외적 상황과 탐관오리의 수탈, 흉년 등 대내적 상황이 겹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안동도 마찬가지였다.

안동은 1860년대 최제우의 영향을 받아서 일직현(현 일직면)을 중심으로 동학도가 활동했던 곳이다. 따라서 1894년에도 예천 동학농민군의 영향을 받아 동학농민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다만 상주나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봉건적인 성향이 강한 이곳의 동학농민군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¹⁾ 다만 동학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午斥邪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하여 안동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미약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²⁾ 단지 1999년 『永嘉記事』가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永嘉記事』를 활용하여 1894년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와 같은 관변자료와 『永嘉記事』, 『崇禎日月』, 『響山日記』 등과 같은 안동에만 남아 있는 기록, 그리고 이전부터 자주 인용되어 오던 『召募日記』, 『召募事實』과 같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측의 자료는 물론, 『執綱所日記』라고 불리는 『甲午斥邪錄』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永嘉記事』와 『崇禎日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永嘉記

-
- 1)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4.
 - 2) 그 이유는 첫째 이필제의 난으로 인해 안동의 동학세가 약해졌고, 둘째 안동유림의 결속력이 강력했으며, 셋째 중소지주와 동성촌락이 발달하여 안동사회 내 유림들의 지배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넷째 토질이 척박하여 봉건적 수탈과 일본인의 횡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이었다(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4 참조). 당시 시대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4가지 이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事』는 『慶尙道七百年史』 4 자료편(경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1999)에 실려 있고, 『崇禎日月』은 유고넷(www.ugyo.net)에 제공되고 있다. 이 글에서 자주 인용할 자료는 『永嘉記事』로, 1894년에서 1895년 초까지 安東營將을 지낸 金好煥(1867~1914)의 일기이다. 이 일기의 속지에는 「花山日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永嘉”나 “花山”은 모두 “安東”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경험을 적은 것이다.

저자인 김호준은 1886년 3월 무과에 장원급제하였다³⁾. 5월 尙瑞院主簿, 6월 訓練院判官, 8월 訓練院僉正이 되었다⁴⁾. 3년 뒤인 1889년에는 摠禦營哨官이 되었고⁵⁾, 다시 4년 뒤인 1893년에는 慶州營將이 되었다⁶⁾. 1894년에는 內禁衛將에 제수되기도 했으나 곧 安東營將에 제수되어⁷⁾ 안동으로 부임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5년 안동영장의 자리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다⁸⁾. 아마 이 사직상소가 받아들여져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66면의 이 일기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지만 김호준이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내용의 순서를 살펴보면 대강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차례대로 겪은 일을 나열해 보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주영장으로 있던 김호준이 안동영장으로 부임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안동 동학농민군 진압과정과 안동부사 이회원의 부임소식이다. 세 번째 부분은 예천집강소와 예천군수가 도움을 요청하자 반동학군을 파견한 일이고, 네 번째 부분은 상주소모영에서 온 관문에 따라 상주로 군사를 보냈다가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보은 복실전투까지 파견되었던 일이었으며, 다섯 번째 부분은 안동영장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귀향소식에 안동민들이 아쉬워 한 일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3) 『高宗實錄』 고종 23(1886)년 3월 7일자.

4) 『承政院日記』 고종 23(1886)년 5월 22일·6월 11일·8월 26일자.

5) 『承政院日記』 고종 26(1889)년 1월 27일자.

6)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년 7월 28일자.

7) 『承政院日記』 고종 31(1894)년 1월 28일·3월 26일자.

8) 『承政院日記』 고종 32(1895)년 2월 23일자.

이 글은 『永嘉記事』를 활용하여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을 차례대로 재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1860년대 안동지역에 동학이 전파되어 확산되었다가 교조 최제우 처형 후 움츠러든 모습을 살피고, 다음으로 최초의 동학농민군이라고 할 만한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을 관군이 진압해 좌절을 겪는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1894년 안동지역에서 재기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와 반봉건 활동은 물론, 이에 맞선 안동영장 김호준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순서대로 파악한다.

II. 동학 확산과 두 번의 시련

동학은 1861년 포교되기 시작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다음해인 1862년에는 안동에도 접소와 접주가 설치되었다.⁹⁾ 당시 접소와 접주가 필요할 정도로 동학이 전파되어 확산되었음을 말해준다.

접의 역할은 포교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제우가 대구감영에 구금되었을 때 옥바라지를 위해 각 접에서 금액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시기가 1863년 12월부터 1864년 3월까지였는데, 안동과 영양 兩接이 500金を 마련했다고 한다.¹⁰⁾ 1864년 3월이면 최제우가 처형당하던 때가 3월 10일이었던 점과 맞아떨어진다. 교조 최제우의 옥바라지를 끝까지 했던 셈이다.

영양접주는 황재민이었고, 안동접주는 李武中이었다.¹¹⁾ 안동접주 이무중과 관련된 일화가 남아 있다. 최시형이 안동으로 몸을 피했을 때, 그는 포졸

9) 『天道敎創建史』;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원, 1994, 148쪽.

10)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원, 1994, 148쪽. 당시 영양접주는 黃在民이었다.

11) 『天道敎創建史』;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199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원, 148쪽.

들에게 뇌물 100여 金을 주고 영덕으로 피신시켰다. 이때 뇌물로 사용된 100여 金은 이무중이 가진 논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¹²⁾

1864년 3월 10일 최제우의 처형 이후, 경상도 동학의 위세는 약해졌다. 그러나 최시형이 영양으로 가서 지하포교에 힘쓰면서, 그 명맥을 유지했던 모양이다. 안동도 접주 이무중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가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이다. 다만 1871년까지 안동의 동학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상을 알기 어렵다.

1864년 최제우 처형으로 “동학이 邪道이고 여기 동참하면 반역”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는 동학의 첫 번째 좌절이었다. 교조의 처형을 통해 이 사상의 확산을 막은 것으로, 동학이 지하에서 은밀히 전파되는 종교가 되는 계기였다.

이필제의 ‘영해란’은 이필제, 최시형 등이 영해관아를 기습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府使를 살해하고 印信을 탈취한 사건을 말한다.¹³⁾ 이 사건은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이 적극적으로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1871년 3월 10일 이필제는 청색의 동학교도와 홍색의 농민들로 구분된 사람들을 이끌고 영해관아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들은 부정하게 재물을 탐했던 탐관오리인 영해부사 李塲을 죽였다.¹⁴⁾ 이후 이들은 영양관아를 습격하기 위해 영해관아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곧 흩어져 주도세력만 영양 일월산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은 각 읍에서 보낸 관군에 의해 105명이 체포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안동사람이 4명, 체포를 면한 1명을 합하면 안동 출신 동학도 5명이 확인된다. 그들은 金千石, 張成鎭, 鄭啓文, 鄭伯元과¹⁵⁾

12)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199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48쪽.

13)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4, 149쪽.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천 맞길 박씨家 일기』 2, 2004, 570쪽; 임형진, 「혁명가 이필제의 생애와 영해」,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131쪽 참조.

15) 『嶺南公蹟』;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

金永淳이다.¹⁶⁾ 김천석은 장성진의 義子이고, 金伯伊의 동생이며, 매부가 李成仲이다. 장성진은 別武士差帖을 받은 인물이다. 정계문과 정백원은 형제사이다. 정계문은 禹大教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그 동생인 정백원은 板材商이었다. 김영순은 체포를 면한 사람인데, 이들은 모두 양인신분이었다. 이후부터 1894년까지 안동 동학에 대한 소식은 알려진 바가 없다.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이 일어나자, 영해부 인근 군현 가운데 안동·영양·삼척·평해의 군사가 영해로 파견되었다.¹⁷⁾ 이들 외에도 흥해와 영덕 등 주변지역에서도 군사를 보내왔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영해부안핵사에 朴濟寬을 임명하였다.¹⁸⁾ 그는 1870년 1월 안동부사에 임명된 인물로,¹⁹⁾ 안동부사로 재직하면서 饑荒을 만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밀린 국세 또한 5월에 모두 납부했던²⁰⁾ 사실이 작용한 듯하다.

영해부안핵사로 임명된 박제관은 ‘영해란’ 진압에 안동영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당시 안동영장은 吳耆善인데, 1870년 12월 임명되었다가²¹⁾ 신병을 이유로 파직되었다.²²⁾ 그래서 초계군수 安鶴善을 안동영장에 차하하고 부임하도록 하였지만,²³⁾ 이미 ‘영해란’이 진압된 이후였다.

이필제의 ‘영해란’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래서 안동부사 겸 영해부안핵사 박제관의 활약 또한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필제의 ‘영해란’이 진압되었고 이 진압에 참여하여 ‘功’

연구소, 1994, 149쪽.

16)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4, 149쪽.

17) 李晚燾, 『響山日記』 1871년 3월 16일자.

18) 『承政院日記』 1871년 3월 16일조.

19) 『承政院日記』 1870년 1월 8일조.

20) 『承政院日記』 1870년 윤10월 19일조.

21) 『承政院日記』 1870년 12월 24일조.

22) 『承政院日記』 1871년 4월 29일조. 『兩銓便考』에 의거해 “각 도의 營將은 軍務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신병을 이유로 파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영장 오기선을 파직하는 것은 격식에 어긋난다고 異論이 제기되기도 했다(『承政院日記』 1871년 5월 2일조).

23) 『承政院日記』 1871년 4월 29일조.

을 세운 관직자들은 승진했다. 이 사실은 “영해에 賊變이 일어났을 때 대응했던 수령들을 포상하는 일”에 흥해군수 金弘灌, 영양현감 徐中輔와 영덕현령 鄭仲愚가 모두 승진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⁴⁾

1864년 최제우 처형으로 “동학이 邪道이고 여기 동참하면 반역”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는데,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 진압과 그 논공행상으로 그 인식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이로써 동학측에서는 두 번째로 좌절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은 조정의 포착되지 않도록 더욱 은밀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최시형 등 동학지도부도 이후 “관치질서 준수”라는 입장을 취하여 1894년 기포령까지도 뒤늦게 선포했던 것이다.

III.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봉건활동

1. 동학농민군의 근거지

1894년 초부터 전국에는 동학농민군이 활동하였다. 안동에 동학농민군 소식이 전해지거나 그 소식을 듣고 기록에 남긴 것은 『崇禎日月』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19일 충청·전라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소식과 그 진압소식을 접하고,²⁵⁾ 21일에는 동학농민군의 도움을 받은 고부농민봉기 소식을 접하였다.²⁶⁾ 6월에 접어들어서도 호남 동학농민군의 소식과²⁷⁾ 일본군의 경복궁 불법점령사건도 듣고 있었다.²⁸⁾

이런 상황 속에서 1894년 7월 22일 안동 동학농민군이 활동하기 시작했다.²⁹⁾ 이때는 안동주변에도 동학농민군 활동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곳이 의

24) 『承政院日記』 1871년 6월 22일조.

25) 權準義, 『崇禎日月』 六, 1894년 4월 19일자.

26) 權準義, 『崇禎日月』 六, 1894년 4월 21일자.

27) 權準義, 『崇禎日月』 六, 1894년 6월 13일자.

28) 權準義, 『崇禎日月』 六, 1894년 6월 26일자.

성이다.³⁰⁾ 의성은 안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 동학농민군이 비안을 통해 들어와 의성관아를 습격하였다. 안동 동학농민군 활동의 시작은 예천과 가까운 가일마을이었다.³¹⁾

동학농민군 활동의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계속된 흉년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들 수 있다. 안동은 1890년에 들면서 가뭄이 심각했고 여러 해 가뭄이 계속되자, 1892년 안동의 곳곳에서 祈雨祭를 지내기도 했다.³²⁾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탐관오리의 수탈은 여전했다. 당시 안동부사였던 홍종영은 1893년 5월 부임한 후 횡령을 계속하였다.³³⁾ 그의 공금횡령 방식은 공금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채무로 빌려가서 갚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안동 부사만 행했던 것은 아니다. 영덕·영해·의흥 등 여러 지역 수령들이 같은 방식으로 취했다.³⁴⁾ 공금의 횡령은 안동부민의 세금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외국군의 경복궁 불법 점령과 같은 사건으로 사회에 만연한 위기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6월부터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곧 이어서 일본군 병참부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 위기감과 불안감, 그리고 대내적 수탈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동학이었다.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는 구미, 풍현내, 풍산 및 서선 수동과 일직 안망곡·운산, 서후 저진, 북후 용천, 감천현이었다.³⁵⁾ 구미는 일찍부터 도

29) 權準義, 『崇禎日月』 六, 1894년 7월 22일자.

30) 申冕澄, <甲午東亂倡義記>, 『楠軒遺錄』; 신진희, 『義城지역 향촌지배층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44쪽.

31) 權準義, 『崇禎日月』 六, 1894년 7월 30일자.

32) 김봉진 편역, 김위현 옮김, 『安東大都護府使 東農 金嘉鎭의 祈雨日記』, 안동문화원, 2010. 1892년 6월 17일 社稷壇, 19일 關王廟, 21일 학가산, 23일 선농단, 25일 선어연, 27일 영남산, 29일 갈라산, 윤 6월 초 하루 조골산, 윤 6월 6일 태백산 등에 제사를 지냈는데, 20여 일이 걸렸다.

33) 『承政院日記』 1894년 10월 29일.

34) 『承政院日記』 1894년 7월 27일; 『承政院日記』 1894년 10월 29일.

35) 金好悛, 『永嘉記事』. 이 일기는 날짜·쪽(면) 등이 표시 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소가 설치되어 안동영장 김호준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곳이고, 나머지는 구미에 도소가 설치된 후에 접소가 만들어지거나 뒤늦게 파악된 곳으로 생각된다.

九尾는 안동에 세 군데가 있다. 일직면 귀미리, 남선면 구미리, 풍남면 구미가 그곳이다. 『永嘉記事』에 “본읍은 직곡과 구미를 서쪽과 남쪽의 경계”로 한다고 하며 “40~50리 떨어진” 곳이라고 적혀 있다.³⁶⁾ 여기서 말하는 직곡은 예천군 호명면 직곡인데, 안동의 서쪽에 있다.³⁷⁾ 즉 남선면 구미리는 안동의 동쪽이므로 제외된다.

풍남면 구미는 관문 서남으로부터 60리 떨어져 있고 8개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³⁸⁾ 일직면 귀미는 안동부의 남쪽 경계로, 관문의 남쪽으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³⁹⁾ 두 군데 모두 『永嘉記事』와 동일한 한자를 사용했지만 거리상으로는 일직면 귀미가 더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풍현내는 풍현내면으로 관문 서쪽으로부터 35리 떨어졌고, 풍산은 풍산면으로 관문 서쪽에서 50리 거리에 있다.⁴¹⁾ 서선 수동은 관문 서쪽에서 30리 떨어진 서선면의 9개 마을 가운데 증수동이다.⁴²⁾ 즉 풍현내, 풍산, 서선 수동은 안동의 서쪽이며 예천과 가까운 곳이었다.

일직 안망곡·운산은 안동부성에서 각각 45리, 35리 떨어진 곳이다.⁴³⁾ 현재 운산은 일직면 소재지이고, 안망곡리는 망호리인데, 모두 안동의 남쪽이고 의성·비안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一直縣은 고려 때부터 안동대도호부의 속현이었다.⁴⁴⁾ 그래서 안동대도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 1894

각주처리를 할 수 없다.

36) 金好悛, 『永嘉記事』.

37)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 1984, 987쪽.

38)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9쪽).

39)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8쪽).

40) 일직면 龜尾는 九尾와 함께 병용되었다.

41)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9쪽).

42)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6쪽).

43)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9쪽).

44)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20쪽.

년 당시에는 안동대도호부 아래 일직면으로 존재하고 있었다.⁴⁵⁾

서후 저전은 서후면 저전리인데 관문 북쪽에서 30리 떨어져 있고 7개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⁴⁶⁾ 북후 웅천은 관문 북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는 북후면의 12개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⁴⁷⁾ 서후 저전과 북후 웅천은 안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영주·봉화·춘양과 가까운 곳이다. 감천현은 관문 서북쪽으로 80리 떨어진 곳으로 12개 마을이 속해 있는 현이다.⁴⁸⁾ 현재 예천군 감천면이다. 감천은 안동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천·영주와 접해 있던 곳이었다. 일직현과 마찬가지로 고려 현종 때 안동대도호부에 편입된 속현이었던 곳이다.⁴⁹⁾ 1894년 당시에는 안동대도호부 아래 감천면으로 존재하고 있었다.⁵⁰⁾

위의 지역들은 안동영장 김호준이 파악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일 뿐이다. 여러 자료들을 수합해서 정리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는 세 군데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안동과 예천의 접경지역으로,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으로서 박학래, 김한돌과 같은 인물이 활동했다. 김한돌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한다. 둘째 안동부읍성 부근으로, 이곳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소송과 관련해 송제수를 잡아들이는 활동을 했다. 마지막 셋째 일직을 중심으로 접이 설치된 곳으로, 이곳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안동영장 김호준과 도총소에 의해 진압되었다.

45)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18쪽.

46)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6쪽).

47)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36~237쪽).

48)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240쪽). 감천은 관문으로부터 110리 떨어져 있다.

49)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20쪽.

50)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18쪽.

2.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활동

1894년 7월 안동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사건은 안동부사 홍종영이 체직되어 예천을 지난다는 소식을 접한 예천 동학농민군이 이들을 습격한 일이다.⁵¹⁾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용궁군 암천에 살고 있던 金順明으로, 그는 9대에 걸쳐 안동 座首와 진사를 지낸 집안의 사람이다.⁵²⁾

김순명은 안동부사 홍종영이 벼슬을 내놓고 돌아가는 길에 예천 경진가점(서울나들이, 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 묵는다는 소식을 듣고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데리고 갔다. 안동에서 토색한 돈을 내고 가라고 하다가 뜻과 같이 되지 않으니 행장, 보료, 요강 등 약간의 짐물을 탈취했다고 한다.⁵³⁾

이 사건이 일어나자, 朴鶴來(1864~1942)는 탈취한 짐물을 돌려줘 “동학의 폐습”을 경계하였다.⁵⁴⁾ 박학래는 헌병이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듯이 동학농민군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직곡접주(예천군 호명면 직곡)였다. 이 사건에서 보았듯이 동학농민군 측에서도 “동학의 폐습”을 경계하고 있었다.

안동에 들어온 동학농민군은 사법권도 행사하였다. 동학농민군은 榜文을 곳곳에 붙여서 “백성 중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지 못했으면 法所에 와서 하소연하라.”고 하였다. 이 방문이 붙으면서 訟事가 동학농민군들에게 맡겨진 것이다.⁵⁵⁾

이 송사와 관련하여 잡아들인 인물은 안동부에 살고 있던 出身 宋梯秀였

51) 박주대 저, 박성수 주해, 『渚上日月』 上, 서울신문사, 1993, 209쪽;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01쪽).

52)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00쪽).

53)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01쪽).

54)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01쪽).

55) 金好煥, 『永嘉記事』.

다.⁵⁶⁾ 송제수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안동부에 살고, 출신이라는 직역을 가진 점을 보면 그는 향리나 중인에 속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김호준은 송제수를 “너그럽기로 이름난 자”라고 평가하였지만 동학농민군 17명이 산송의 일을 핑계 삼아 잡아갔다는 점으로 보아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산송의 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안동영장 김호준은 동학농민군의 사법권 행사에 분노가 일어나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사법권 행사를 위해 모였던 곳은 金溪 松夜川 가였다.⁵⁷⁾ 그곳은 의성김씨 학봉종택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는데 이곳에서 동학농민군이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당시 수령이 없는 안동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학봉종택에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림 1> 안동 동학농민군이 있었던 송아천 일대(네이버지도)

56) 金好煥, 『永嘉記事』.

57) 金好煥, 『永嘉記事』.

동학농민군은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할 黑牌와 行錢, 標紙를 가지고 있었다.⁵⁸⁾ 흑패는 목패 또는 목패자로 불리던 까막배자로 보인다. 이것은 세력 있는 사람이 미천한 사람을 부를 때 먹물도장을 찍어 보내던 패자이고, 행전은 말 그대로 먼 길을 다닐 때 사용한 돈이며, 표지는 證據의 표로 적은 글 발의 종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붉은 도장으로 서압을 찍은 글이다. 거기에 ‘어느 장소의 法所’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어 스스로를 증명하였다.⁵⁹⁾

그 입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한 일화가 남아 있다.⁶⁰⁾ “蘇湖 李重明의 둘째 아들”은 안동에서 영향력이 큰 “金都事의 장손”을 끌어들이려 했다.⁶¹⁾ “蘇湖”는 일직 소호 한산이씨 대산종가를 말한다. 『족보』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중명의 둘째 아들”은 李惠求(1873~1933)이다.⁶²⁾ 당시 21세의 청년이었는데, ‘제폭구민’, ‘척왜양’이라는 동학농민군의 구호에 동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가 왜, 어떻게 동학에 입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밝힐 수가 없었다.

1894년 당시 金都事로 알려진 인물은 金道和(1825~1912)이다. 그의 첫째 아들은 金綱輝(1840~1880)이고, 장손은 金獻周(1866~1936)이다.⁶³⁾ 김현주는 김도화의 셋째 아들인 김진휘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김경휘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김도화의 장손인 그는 柳必永의 딸이자 柳寅植의 친누이와 혼인하였다.⁶⁴⁾ 이는 곧 그의 할아버지, 장인과 처남이 모두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58) 金好煥, 『永嘉記事』.

59) 金好煥, 『永嘉記事』.

60) 신진희,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전기의병장들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47~49쪽.

61) 李晚燾, 『響山日記』, 1894년 8월 26일자.

62) 한산이씨대동계보편찬위원회, 『韓山李氏大同系譜』, 1979, 1054쪽.

63)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義城金氏大同譜』 4, 1992, 232~270쪽.

64)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義城金氏大同譜』 4, 1992, 232~270쪽; 전주류씨대동보편찬위원회, 『全州柳氏大同譜』 2, 2004, 987~991·995쪽. 류인식은 류필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從伯父인 柳祈永의 양자가 되었다. 그는 동학농민군을 민란으로 인식했지만 그들을 진압하려고 반동학농민군을 결성하거나 직접 진압에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조정이 일본군에 동학농민군 진압을 요청하자, 이를 “어찌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내란을 진압하고서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柳

성리학자였고 그 영향을 받은 김현주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군을 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김현주는 이중명의 둘째 아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동학 입도를 거부했다. 이에 이중명의 둘째 아들은 김현주를 묶어서 동학 입도를 강요하였다. 김현주는 거짓으로 동학에 입도한다고 말하고서 풀려나자 안동진영에 이 사실을 알렸다.⁶⁵⁾ 이 사건을 겪은 김도화는 “東匪之厄”이라고 표현하였다.⁶⁶⁾ 그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되고 직접 물리치지 못한 것을 한탄했지만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서지는 않았다.⁶⁷⁾

IV. 동학농민군의 세 번째 좌절 : 안동영장 김호준의 동학농민군 진압

1. 都摠所 결성과 안동부 동학농민군 진압

3월 안동영장에 임명되고 5월 도입한 김호준은 7월 말 송야천 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던 동학농민군과 마주쳤다.⁶⁸⁾ 그 뒤 김호준은 夫老들과 논의

寅植, 『附錄』, 『東山文稿』; 권대웅, 「경상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87쪽; 박결순, 『시대의 선각자 혁신유림 류인식』, 지식산업사, 2009, 50쪽).

65) 李晩燾, 『響山日記』, 1894년 8월 26일자. 이것을 알게 된 안동 관군과 도총소의 병력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직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의 파병 소식을 들은 이중명의 둘째 아들은 서둘러 몸을 피해 안동 도총소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집은 모두 태워졌다.

66) <김도화간찰>, 『독립운동가 서한집』(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2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57쪽.

67) 신진희,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전기의병장들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57쪽.

68) 『永嘉記事』에 西後에 사는 金興洛이 영해부사로 임명되어 김호준이 빨리 도입하라고 재촉하는 관문을 받고 김홍락을 만나러 갔다. 이 길에서 만난 것이 송야천 가에 있던 동학농민군이었다. 김홍락이 영해부사로 임명된 것은 7월 28일(『承政院日記』)

를 통해 군사를 모집하여 동학농민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都摠所를 꾸리고 다음으로 五家作統으로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었다.⁶⁹⁾ 도총소를 둔 곳은 鍊武亭이었고,⁷⁰⁾ 이곳에 위치한 도총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首都摠	前五衛將	金翼張
副都摠	前參奉	權載經
參謀	前出身	權善奎
書記	府吏	權應祥

이들 도총소의 구성원은 무관을 지냈거나 안동부성 내에 있던 향리가 중심이었다. 책임자 또한 무관 출신으로, 효과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인물이었다. 김익장은 1887년 12월 五衛將에 제수되었고 다음해 1월 오위장에 單付되었던 사람이다.⁷¹⁾ 그에 대한 김호준의 평가는 노숙하여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니 수도총을 맡길 만 하다는 것이었다.⁷²⁾ 이러한 평가는 부도총을 맡은 권재경이나 참모를 맡은 권선규, 그리고 서기를 맡은 부리 권응상 등을 선정한 이유에서도 나타났다. 권재경은 풍채와 힘이 있어서 능히 사람들을 포용하고, 권선규는 算學에 능하고 재주와 지략이 있으며, 권응상은 문학에 밝다고 하였다.⁷³⁾

이들 외에도 10명의 군관을 뽑았다.

退校	金達憲, 李斗仁, 權桂紅, 朴禹春
時校	權在鍾
府吏	金熙根, 金會一
書員	李章赫

이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8월 초에는 군사를 모아 都摠所를 꾸렸다고 할 수 있다.

69) 金好俊, 『永嘉記事』.

70) 金好俊, 『永嘉記事』.

71) 『承政院日記』 1887년 12월 2일 · 1888년 1월 20일자.

72) 金好俊, 『永嘉記事』.

73) 金好俊, 『永嘉記事』.

出身 朴建仁, 權龜洛

뽑힌 10명의 군관은 군사를 훈련시켰다. 많은 군사를 신속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휘관이었다. 영장은 무관 정3품의 직으로 아래에 군관 200명, 軍牢 30명이 있었다.⁷⁴⁾ 여기서 뽑은 10명의 군관은 도총소의 병력을 훈련하기 위한 군관이었던 것이다. 훗날 예천에 보낸 군사가 3,031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⁷⁵⁾ 이들 군관은 1명 당 3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켰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도총서가 설치되자, 김호준은 먼저 안동부성 안에 들어온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軍官과 牢卒, 下人들에게 총과 포를 들게 하고, 그 뒤를 府民들이 따르게 하여 出身 宋梯秀를 잡아간 17명을 잡아들였다. 김호준이 17명을 치도곤하면서 이들의 행장 속에서 발견한 것이 흑패, 행전, 표지와 붉은 도장으로 서압을 찍은 글에서 ‘어느 장소의 法所’라는 글이었다. 이들이 동학농민군이었던 증거를 확인한 셈이다. 이후 그는 10씩 치도곤하고 머리에 칼을 찌우고 수갑과 착고를 채워 가두었다가 다음날 南川 가에 묶음으로써 안동부민을 경계시켰다.

이 소식을 각 면과 각 동에 전령을 보내 알렸다. 巡營에서도 關文이 여러 차례 왔는데, “匪類를 엄금하고 만약 계속 창궐하거든 붙잡아 가두고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즉 法意를 보여주고 귀화를 유도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김호준 자신이 17명의 동학농민군에게 내린 處遇인 강가에 묶는 강경책과는 사뭇 다른 유화책이었다.

김호준의 처우가 순영의 입장보다 강력했음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여전했다. 北後面 薪田洞에는 동학농민군이 機捕官을 청하면서 활동하였다. 다만 안동부민에게 경계시킨 영향이었던지 신전동민들이 기포관을 청한 동학농민군을 잡아 안동진영으로 보내왔다. 김호준은 부민들을 불러 모아 “죽이

74)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24쪽.

75) 潘在元, 『甲午斥邪錄』 8월 29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302~305쪽).

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고 “죽일 만하다.”는 답을 듣고 그들을 죽이게 하였다.⁷⁶⁾ 이 장면은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들을 진압하기 위한 활동이 맞물려 안동사회가 상당히 혼란했음을 보여준다.

안동부성 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 오가작통을 바탕으로 한 巡捕가 구성되었다. 초경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순패를 가지고 순행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안동부민 스스로 동학농민군을 경계하고 이미 동학농민군에 가담했다더라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했다.

안동부 내를 단속한 김호준은 동학농민군의 근거지가 있는 一直으로 군사를 돌려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⁷⁷⁾ 밤에 수도총 김익장을 만나서 작전을 논의하였다. 안동진영의 군사와 官隸를 보내 한꺼번에 동학농민군을 ‘소탕’하고자 하였다.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兵校, 別軍官, 時校 등 30여 인과 遊擊將 18인, 砲軍 30명, 營府의 率領 30여 명과 邑軍이 징발한 1,000여 명”이었다.⁷⁸⁾ 이들은 대부분 삼릉창 혹은 총과 칼을 지니고 있었다.

일직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동 映湖樓를 건너 일직으로 진군하였다. 구미점과 운산점이 안망곡으로 합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前軍은 구미로 진격하여 세 방향으로 포위해 공격하도록 하고, 後軍은 청산평원에 매복하고 동학농민군의 지원군이 안망곡에서 도와주지 못하게 길을 끊고 습격하게 하였다. 새벽 습격은 성공했고 임무를 마친 군사는

76) 부민의 의견을 물었고 이를 따른 것에 대해 김호준은 『孟子』의 “나라사람들이 죽인 것이다.”를 인용하여 자신이 아닌 부민들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죽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孟子』 <梁惠王> 下에 있는 것은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죽일만한 점을 발견한 뒤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이다. (『孟子』 <梁惠王> 下,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然後, 察之, 見可殺焉然後, 殺之, 故曰國人殺之也.”)

77) 신진희,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전기의병장들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0, 2017, 47~49쪽에는 일직 소호리에 살고 있던 “李重明의 둘째 아들”이 일직 구미리에 살고 있던 拓庵 金道和(1825~1912)의 종손 金獻周를 동학에 입도시키려고 했던 일이 실려 있다.

78) 金好俊, 『永嘉記事』.

오후에 안동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붙잡아 데리고 온 포로는 4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날 안동진영에서 진행되었다. 동학농민군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9명은 매장하고 33명은 풀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嶺南宣撫使 李重夏가 안동에 왔다. 그는 7월 26일 영남선무사, 다음날인 27일 按察使를 겸하였는데,⁷⁹⁾ 8월 말 즈음 안동부에 들어와 宣諭하고 승리해서 돌아온 이들에게 錢文 100냥을 내어 鍊武亭에서 음식을 베풀었다.⁸⁰⁾ 그러나 이로써 동학농민군 진압활동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안동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가 잡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두머리인 金漢丕·金瑞坤·黃默伊 등이 잡힌 때는 12월 초였다.⁸¹⁾ 김한돌과 김서곤은 예천읍이 예천집강소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진압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들의 요구에 따라 화의를 체결하기 위해 예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은 안동을 거쳐 영해와 영덕으로 도피하였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 안동진영에 붙잡히게 된 것이다.⁸²⁾ 황묵이에 대한 실마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중 김한돌은 안동사람으로, 본래 안동진영 장교였다고 한다. 영장이 虐民할 때 같이 하다가 판세가 점차 바뀌게 되자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 동학에 입도하였다. 안동 발산접의 접장이 되어 민·형사를 모두 처리했으며, 동학농민군 중군대장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⁸³⁾ 김한돌이 안동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일은 12월 8일 도총소가 예천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알렸다.⁸⁴⁾ 이로써 안동영장 김호준의 동학농민군 진압활동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 되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진압활동은 안동에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다. 도총소의

79) 『承政院日記』 고종 31(1894)년 7월 26일·27일자.

80) 金好悛, 『永嘉記事』.

81) 金好悛, 『永嘉記事』.

82)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27~129쪽).

83)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08~109쪽)

84) 潘在元, 『甲午斥邪錄』 1894년 12월 8일자.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2. 안동 도총소 병력의 他地 파견

안동부 도총소의 병력이 가장 처음 파견된 곳은 예천이었다. 8월 24일 예천군 執綱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私通이 안동부에 도착했다.⁸⁵⁾ 이에 김호준은 군병을 보내는 일을 개인편지에 따라 멋대로 할 수 없으니 예천읍을 통해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醴泉郡守 趙爰夏가 牒報를 다시 보내왔다.⁸⁶⁾

김호준은 예천군수의 公牒을 받은 후 摠議所에 전령을 보내 예천을 돕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⁸⁷⁾ 당시 동학농민군은 안동의 근거지를 상실하였고 의성에서도 근거지를 상실하여 예천으로 모여 들고 있었다.⁸⁸⁾ 이는 예천의 병력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난 뒤, 그들의 근거지에서 발견한 文簿와 都錄에서도 확인되었다.⁸⁹⁾ 김호준의 입장에서는 안동의 동학농민군이 예천으로 넘어가 예천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졌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도총소에서 예천으로 보낸 병력은 3,031명이었고, 그 뒤를 따라 안동 後軍 500여 명도 보냈다.⁹⁰⁾ 당시 예천의 병력이 1,5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인원이었다. 예천집강소는 이후 53명의 일본군과 통역, 火兵 10명이 더 합류하였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총소에서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집되었던 兵馬 8천 가운데 일부를 보냈기 때문이다.⁹¹⁾

85) 潘在元, 『甲午斥邪錄』 1894년 8월 24일자; 金好悛, 『永嘉記事』.

86) 金好悛, 『永嘉記事』. 조원하는 1893년 10월 예천군수에 제수된 인물로, 1895년 4월 改差를 청할 때까지 재직하고 있었다(『承政院日記』 고종 30(1893)년 10월 28일 · 고종 32(1895)년 4월 29일자).

87) 金好悛, 『永嘉記事』.

88) 潘在元, 『甲午斥邪錄』 8월 23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291~292쪽).

89) 金好悛, 『永嘉記事』.

90) 潘在元, 『甲午斥邪錄』 8월 29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302~305쪽).

예천읍군이 동학농민군과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도착한 안동의 병력은⁹²⁾ 예천읍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지원했다. 이때 “싫나무는 시체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모래밭은 시체를 쌓은 장소”가 될 정도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⁹³⁾ 진압을 끝낸 안동의 병력은 다음날 다시 안동으로 돌아왔다.⁹⁴⁾

안동부 도총소의 병력은 3개월 지난 12월에 다시 파견 요청을 받았다. 두 번째로 파견 요청을 한 곳은 尙州召募營이었다.⁹⁵⁾ 12월 11일 상주소모영의 관문이 안동에 도착했고, 13일 재촉하는 관문이 다시 도착했다. 그래서 안동 부사 이희원과 摠議所에서 軍民을 모두 모아 군병을 징발하였다.⁹⁶⁾ 마침내 12월 15일 안동을 출발하여 17일 상주에 도착하였다.⁹⁷⁾

안동의 병력을 인솔한 사람은 좌익장 權秀琮과 서기 權在重이었다.⁹⁸⁾ 權秀琮은 『永嘉記事』에는 權載經이라 쓰여 있는 인물로, 안동부 도총소의 부도총을 맡았던 인물이었고, 12월에는 좌익장을 맡아 병력을 인솔하였다.⁹⁹⁾ 서기 權在重은 아마도 도총소에서 뽑은 군관 10명 가운데 한 명인 時校 權在鍾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이 이끌고 간 안동의 병력은 317명이었다.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에서는 370명이라고 적고 있다.¹⁰⁰⁾ 하지만 7끼를 먹은 밥상이

91) 金好煥, 『永嘉記事』.

92) 金好煥, 『永嘉記事』.

93) 金好煥, 『永嘉記事』.

94) 金好煥, 『永嘉記事』.

95) 金好煥, 『永嘉記事』.

96) 金好煥, 『永嘉記事』.

97) 鄭宜默, 『召募日記』 1894년 12월 15일자; 慶尙道召募營,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98) 鄭宜默, 『召募日記』 1894년 12월 17일자; 慶尙道召募營,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99) 鄭宜默, 『召募日記』 1894년 12월 12일자. 『경상도칠백년사』에는 권재경과 권재기를 동일인물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학당정토인록』과 『갑오군공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영가기사』에 나오는 권수종의 역할과 『동학당정토인록』의 권재경, 『갑오군공록』의 권재기의 그것이 동일하여 동일인물로 파악하였다.

100) 鄭宜默, 『召募日記』 1894년 12월 17일자; 慶尙道召募營,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

2,219床이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2,219 \div 7 \approx 317$ 명) 317명이라는 답이 나온다. 상주소모영은 총군 600명을 각각 3일치 식량을 휴대하고 출발시키라고 요청하였지만 안동에서는 그 수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안동부내의 동학농민군이 진압되고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317명 가운데 277명은 19일 점심을 먹고 상주를 출발하여 안동으로 다시 돌아왔다.¹⁰¹⁾ 이들은 귀환노자 100냥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총군이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있던 부대인 듯하다. 안동의 병력 가운데 포수 출신으로 능숙하게 총포를 사용할 수 있는 40명만 상주에 남겼다. 상주소모영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병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것이다. 이것은 귀환노자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277명의 귀환노자가 100냥(1인당 0.361냥)이었던 데 비해, 포수 40명의 귀환노자는 40냥(1인당 1냥)이었다.

상주에 남은 포수 40명은 다시 보은으로 출발하였는데, 이 후발대의 대장이 바로 尙州召募使 鄭宜默이다.¹⁰²⁾ 그리고 이들이 갔던 전장은 바로 북실(鐘谷)이었다. 북실전투는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벌어진 전투로, 상주소모영 遊擊將 金奭中和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것을 일컫는다. 상주소모사 정의목을 따라간 안동 도총소의 포수 40명은 북실전투가 끝난 후에 도착했다. 이 때문에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인솔한 지원병력은 다시 상주로 되 돌아왔는데, 이때가 20일이었다.

안동 도총소의 포수 40명은 다음날인 21일에 안동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안동영장 김호준은 “斗率院 20리”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원문에는 “斗率院”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안동에서는 이곳을 “兜率院”이라고 한다. 이곳은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었지만 1894년 당시에는 지명만 남아

實數成冊』. 말 15필과 마부 15명을 포함하더라도 370명이라는 숫자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마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101) 鄭宜默, 『召募日記』 1894년 12월 19일자·21일자; 慶尙道召募營,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102) 鄭宜默, 『召募日記』 1894년 12월 19일자·21일자; 慶尙道召募營,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있을 뿐 院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¹⁰³⁾ 이곳까지 안동영장 김호준이 마중을 나가 병사들의 노고를 致賀했다. 안동부예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지원군에게 술과 밥을 배풀어 위로하였다.¹⁰⁴⁾

V. 맺음말

이상에서 『永嘉記事』를 활용하여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에 차례대로 재정리하였다. 먼저 동학사상이 안동지역에서 확산되다가 1864년 3월 10일 최제우의 처형으로 위축되었다. 이때 안동접주 이무중이 처형 전까지 최제우의 옥바라지를 하고 이후 최시형의 도주를 도왔던 일화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최제우의 처형은 안동지역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였다. 그래서 이후 동학사상의 전파는 움츠러들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활동을 한 것이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이었다.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던 이 사건이 실패하면서 다시 동학사상은 수면 아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때 동학사상은 안동지역 나아가 영남지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었다. 두 번의 좌절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이 동학사상은 20년이 지난 1894년 다시 두각을 나타냈다. 동학사상이 안동지역에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상주와 예천 동학농민군에 이어 안동과 의성 등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법권 행사 등 기존의 권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반봉건 활동이었다. 또 동학농민군에 입도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 권력을 부정하는 활동을 진행하자, 안동부사가 없던 안동에서

103)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56쪽.

104) 金好煥, 『永嘉記事』.

는 영장인 김호준이 도총소를 꾸리도록 지원하고 병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김호준 등 도총소 병력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가장 먼저 안동부성 안에 들어와 있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안동부성 바깥 안동부의 통제권 아래에 있던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일직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안동의 동학농민군이 진압되었다.

하지만 안동의 동학농민군은 예천 동학농민군에 합류하여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예천집강소 또한 동학농민군과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예천집강소는 주변 군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받은 김호준을 도총소 병력을 파견하여 예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지원하였다.

안동은 예천 동학농민군이 진압되고 3개월이 훨씬 지난 12월에 다시 상주소모영의 관문을 받고 병력을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들이 요청한 600명의 인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17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포수 출신 40명만 두고 나머지 병력은 안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포수 출신 40명은 상주소모영 정의목의 인솔에 따라 보는 복식전투를 지원하려 갔으나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전투가 끝나 실제로 참전하지는 않고 돌아왔다.

이처럼 안동지역 동학사상과 동학농민군은 세 차례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좌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바탕이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활동과 그 좌절은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그들을 진압했던 세력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전기의병, 10년 뒤 중·후기의병, 그리고 다시 10여 년 뒤 일어난 3.1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부르짖음이 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高宗實錄』
『嶠南公蹟』
『承政院日記』
〈梁惠王〉 下, 『孟子』
『天道教創建史』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慶尙道召募營,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權準義, 『崇禎日月』
金好煥, 『永嘉記事』
柳寅植, 〈附錄〉, 『東山文稿』
朴鶴來, 『鶴樵傳』
李晚燾, 『響山日記』
申冕滢, 〈甲午東亂倡義記〉, 『楠軒遺錄』
潘在元, 『甲午斥邪錄』
鄭宜默, 『召募日記』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부읍지」, 1928(국학진흥원, 『안동의 지리』, 2011)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 1984
〈김도화간찰〉, 『독립운동가 서한집』(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2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김봉진 편록, 김위현 옮김, 『安東大都護府使 東農 金嘉鎭의 祈雨日記』, 안동문화
원, 2010
박결순, 『시대의 선각자 혁신유림 류인식』, 지식산업사, 2009
박주대 저, 박성수 주해, 『渚上日月』 上, 서울신문사, 1993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6(경상도 VI), 디자인 흐름, 2009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義城金氏大同譜』 4, 1992
전주류씨대동보편찬위원회, 『全州柳氏大同譜』 2, 2004

한산이씨대동계보편찬위원회, 『韓山李氏大同系譜』,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천 맛질 박씨家 일기』 2, 2004

권대웅, 「경상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신진희, 「義城지역 향촌지배층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신진희,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전기의병장들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임형진, 「혁명이 이필제의 생애와 영해」,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정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안동」, 『安東文化』 1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4

Abstract

The Resistance of the Donghak Peasants' Army in Andong in 1894

Shin, Jin-hui

This study reorganized the resistance of the peasants' army in Andong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cording to yeonggagisa (永嘉記事). The peasants' army experienced the first setback in the 1860s when the founder of Donghak, Choi Je-u, was executed by the government. In 1871 they faced up to another difficulty, as Yi pil-je's revolt was quelled in Yeonghae. The Donghak peasants' army resurged in 1884 but was eventually suppressed. However, these seemingly failed series of attempts triggered the people to find other ways to break through in their fight against the corrupt regime and society, and led to the formation of righteous armies around the same time (the early righteous armies) and ten years later (the mid and late righteous armies). The spirit of the people's resistance was passed down to the March First Movement that occurred another decade later.

keywords:

『yeonggagisa(永嘉記事)』, Choi Je-u, Yi pil-je, Kim ho-jun, the early righteous armies, the mid and late righteous armies, Andong

